

18. 한국인에 있어서의 대장용종

서울의대 내과 간연구소

윤세진·김나영·정현재·윤용범
송인성·최규완·김정룡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장용종은 대장암의 전단계 병변으로 인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구에서는 대장용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장용종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와 보고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자 1976년 6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13년간 서울 대학교병원 외래 및 입원한 환자 중 S자 결장경 및 대장경을 시행한 총 15,000예 중에서 대장용종이 발견된 767예를 대상으로, 용종 발견율의 해마다의 추이, 연령별 분포와 항문출혈의 빈도, 대변의 잠혈검사 내지 대장조영술에 의한 용종발견의 정확도, 용종의 크기와 조직학적 분류 및 동반된 암의 빈도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내시경을 시행한 총 15,000예 중 대장용종은 767예(5%)에서 발견되었고 발견율은 년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연령별 분포는 40대에서 24.7%로 제일 높은 빈도를 보였고 남자에서 62.5%로 여자 보다 높은 빈도를 증시하였다.

3) 항문출혈이 27%로 제일 흔한 증상이었다.

4) 대변의 잠혈검사를 3회이상 시행한 총 203명의 환자중 43명(21%)에서 양성을 보였고 대장 X-선 조영검사를 시행한 총 158예 중 88예(55%)에서 용종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육안적 형태분류는 Yamada 분류상 제 2형과 제 4형 순으로 많았고 조직학적 소견은 선종형이 49% 비후형이 38%이었다.

6) 용종의 크기가 클수록 조직상 용모성선종인 경우가 많아 크기가 2 cm 이상인 용종 30예 중 11예(36.6%)에서 용모성 선종이었고 암이 4예(36%)이었으며 2 cm 미만인 용종 245예 중 용모성 선종이 10예(4%), 암은 없었다.

7) 용종 제거술을 시행한 예에서 내시경 소견과 술후 조직학적 소견을 비교시 제거술후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비후형 14예 중 9예(64%) 선종은 75예 중 68예(91%)에서 내시경 소견으로서 조직학적 형태를 예측할 수 있었다.

8) 관상선종 135예 중 6예(4.4%), 관상용모성선종 24예 중 4예(16.6%) 용모성 선종 21예 중 4예(19%)에서 암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용종의 발견율은 년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장조영술은 용종 발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talk이 있는 용종의 경우에는 내시경 울가미를 이용한 전기소작 절제술을 시행하여 제거한뒤 조직학적 검색을 시행함이 원칙이겠으나 Stalk이 없어서 상기 기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 용종의 크기가 2 cm 미만인 경우는 동반되는 암이 없으므로 비록 용종 전체의 조직학적 검색이 불가능 하더라도 레이저 조사술등으로 제거하는 것도 합리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19. 비개흉술적 식도절제술의 임상 경험

연세의대 내과

박희봉·한석주·김충배

식도암에 있어서 개흉술없이 transhiatal esophagectomy가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다. Transhiatal esophagectomy는 transthoracic esophagectomy에 비해서 respiratory complication이 적고 비교적 간단한 술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대학교실에서 시행한 transhiatal esophagectomy 15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15 case 중 11 case는 식도암이었으며, 나머지 4 case는 후두 또는 인두암에서 전후두인두 식도절제술후 transhiatal method로 위를 이용하여 식도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이다.

2) 환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51세에서 70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59.4세였다.

3) 입원기간은 13일에서 48일까지였으며 수술후 3주 내에 70%이상의 환자가 퇴원할 수 있었다.

4) 식도암으로 수술한 11명중 경부식도암은 1명

(9%), 상부 1/3인 경우가 3명(27%), 중부 1/3인 경우가 2명(18%), 하부 1/3인 경우가 5명(46%)였다.

5) 조직검사 소견은 1예를 제외하고 모두 편평상피암이었으며, 1예는 small cell cancer였다. 술후 조직병리검사상 TNM stage상 1기인 경우는 3명이었다.

6) 수술시간은 4시간 30분에서 13시간으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후두암의 경우를 제외한 식도암에서는 평균 5시간 50분이었다. 수술중 수혈한 전혈량은 평균 1130 cc였으나, 후두암을 제외한 식도암에서는 평균 870 cc였다. 수술중 흉곽내출혈로 개흉술을 시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기흉이 발생한 경우는 2예였다. 수술중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7) 합병증으로는 recurrent laryngeal nerve palsy가 5예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일시적인 hoarsoness 3예는 6개월 내에 회복하였다. 그의 문합부 협착이 3예, 문합부 누출이 2예 있었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예는 없었다.

Transhiatal esophagectomy는 비교적 합병증이 적고, 문합부가 경부에서 이루어지며 술식이 용이하고 술후 보조적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어, 식도암의 고식적 수술 방법으로 가치가 있다 사료된다.

20. 고식적 위전절제술

연세의대 외과

최승호 · 노성훈 · 민진식

보건사회부 암등록부의 '한국인 암등록 조사자료(88년 7월~89년 6월)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중 위암이 24.0%로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위암의 치료는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절제술이 불가능한 예도 허다하다.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예에서 가능한한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시험개복술이나 문합술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생존기간의 연장 및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보고가 많다. 그러나 고식적 술식으로의 위전절제는 높은 수술사망율과 수술후 합병증으로 인해 기피되어왔으나 최근 술기 및 수술전후 처치의 발달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연자들은 1980년 1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만

10년간 본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고식적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41예에 대하여 임상적 특성, 고식적 절제술의 원인, 수술후 합병증 및 사망율, 생존율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위암으로 위전절제를 시행한 462예중 고식적 위전절제술은 41예(8.9%)였다.

2) 연령분포는 40대 및 50대가 20예(48.8%)로 제일 많았으며 남녀비는 1.16 : 1이었다.

3) 증상은 상복부동통 27예(65.9%), 체중감소 18예(44.9%), 상복부불쾌감 16예(39.0%) 순이었으며 복부종괴가 촉진되었던 경우가 8예(19.5%)였다.

4) 첫 증상 발현후 진단까지의 병력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 25예(61.0%), 6개월 이상인 경우는 7예(17.0%)였다.

5) 병소의 육안적 분류는 Borrmann 제 3형 21예(51.2%), 제 4형 12예(29.2%), 제 2형, 5예(12.2%), 제 1형 3예(7.3%)순이었다.

6) 고식적 절제술의 원인으로는 복막 혹은 장간막의 전이 15예(36.6%), 절제면에서 암세포발견 12예(29.3%), 육안적 국소잔류병소 9예(21.9%), 간 전이 4예(9.8%), 골 전이 1예(2.4%)순이었다.

7) 수술후 합병증은 7예(17.1%), 수술후 사망은 2예(4.9%)였다.

8) 수술후 1년 생존율은 45.4%, 2년 생존율은 23.9%, 5년 생존율은 6.8%였으며 평균생존기간은 16.5개월이었다.

결론적으로 위전절제술은 악성위암의 잔류병소가 예상되는 예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술후 합병증 및 사망율과 함께 양호한 생활의 질과 생존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사료되었다.

21. 대장암의 연령에 따른 임상 분석

서울의대 외과

박진우 · 양한광 · 박재갑 · 김진복

1973년 1월부터 1986년 12월까지 14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일반외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713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임상 및 병리 조직학적 소견과 생존율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전체 환자군 및 결장암, 직장암 각각의 환자군에 대해